

투데이 칼럼

애늬은이가 아닌 애어른 정치

학창 시절에 '애늬은이'라고 불리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항상 행동이 느리고 변화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친구들과 더불어 놀림을 당하곤 했다. 친구들과는 조용필, 송골매에 열광하고 빠져 있을 적에 그 친구는 흘러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애늬은이라고 했다.(주: 애늬은이는 어른신을 폄하한 말이 아님을 밝혀둔다)

'애늬은이'와 '애어른'은 의미가 다르다. '애어른'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성품이 의젓하여 정신적, 인지적으로 성숙하고 사려 깊다는 개념이다. 반면에 '애늬은이'는 생김새나 행동이 나이가 든 사람같이 기운 없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매사가 느린 아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늙어간다. 여기서 늙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일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나이는 많지만 생각이 젊은 어른들도 무척 많다. 여기서 생각이 젊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이면서 미래를 말한다 뜻이다. 사람은 늙지만

정치는 늙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을 행복하고 잘살게 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늙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항상 그랬듯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국민적 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패망하게 한 적도 있었고 지도자의 욕심이 정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국민이 실을 받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다. 그래서 지도자의 정신이 늙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애늬은이'여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항상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



김갑봉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

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결과도 여소야대였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4당 분립 구도가 형성됐다.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25석, DJ의 평화민주당 70석, YS의 통일민주당 59석, 그리고 JP의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이었다. 야당 동맹이 없으면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 현재의 20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13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81.1%에 달했다. 국회 운영을 야당

이 주도하면서 여당을 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애늬은이'가 아니라 '애어른'처럼 성숙한 정치를 펼친 결과이다. 지금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마지막 회기가 열린 지난 4월 21일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정치의 중심에 '국민'은 없었다. 20대 총선 결과는 민생과 민의를 살피, 소외받는 사람들을, 청년실업, 고용과 복지를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다섯 번째로 나오는 글을 잠시 인용하면, 문왕이 강태공에게 "천하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고 물으니 강태공 왈 "天有尙形 民有尙生"이라 답했습니다... 물어보면, 하늘에는 일상 형체가 있으며, 백성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천하와 더불어 그 삶을 함께하면, 천하는 자연히 고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정치입니다.

이번 총선에 당선된 지도자들에게 부디 국민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애늬은이'가 아니라 '애어른'처럼 성숙한 정치를 기대해본다.

사설

5월,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5월 어린이날부터 황금 연휴 내내 행사 계획들이 잡혀 있다. 그런데 그 축제들과 관련하여 짚어볼 게 있다. 지명도가 높은 축제가 있는가 하면 지명도가 낮은 축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축제 행사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축제가 한 때의 오락거리나 통과례 정도로 그 의미가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지명도가 달한 축제는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축제의 지명도는 언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언론이 오래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축제를 놓고 보아도 그렇다. 언론이 오래라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축제가 더러 있다. 그 반면에 언론이 그리 깊지 않아도 명성을 떨치는 축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의 각 시군 지자체는 해마다 축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적인 실익도 따져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울해도 5월 축제가 나아질 방향은 분명하다. 문화와 전통을 알리

고 지역의 이미지를 한껏 제고하는 쪽이라야 한다. 이같은 주문은 열 번을 강조해도 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는 반드시 관광 자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렇다. 이제 우리 지역의 축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틀잡아야 한다. 돈을 버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 모든 지역 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내실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여주는 고사하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데도 무기력한 축제라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다른 관역 시도의 각 지자체들도 5월이면 자체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의 축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뚜렷한 이미지 정립이 필요하다. 도내 축제 관계자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지역 축제를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축제마다 그 규모에 걸맞은 관광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거듭 당부하건나와 관계자들은 내실 있는 축제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근로 빈곤층의 목소리에 관심을

전북도에 주고 싶은 말이 있다. 5월이 축제의 계절이지만 그걸 즐길 입장이 못 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근로 빈곤층들이다. 전북도는 그들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근로 빈곤층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요즘 일거리가 부족한 때라해서 그렇지 근로 빈곤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옛 그제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종남문 광장에서 시위하면서 말했던 호소가 있다. 지금의 쉬운 해고 정책은 곤란하다는 게 그것이다.

근로빈곤층을 챙기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 마땅하다.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냥 상투적으로 흘러 말해선 안된다. 민생경제 살리기는 곧바로 전북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근로 빈곤층의 요구를 포함하는 민생 경제를 잘 살리려면 좀으려나와 그제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동안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번 말했었지만 뜻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또 언급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성취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다들 생각이 제각각이니 말이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알뜰함을 보장해주는 고용안정이 정립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일거리가 불안정하다면 그들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들을 내몰면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업인의 양식은 상생의 목소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주가 칼자루를 쥐고서 쉬운 해고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생 안정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전북 지역은 다른 고장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한국 전체의 가계 부채가 1천2백조 원을 넘어 넘어와 그제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동안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번 말했었지만 뜻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또 언급하는 것이다.

독자재언

고속도로 차량고장·사고 시 2차사고 예방하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말에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단위의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과 적정한 안전거리 확보로 사고를 최소화해야하지만, 만약 발생한 사고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시 대형사고와 2차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져 2차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5.6배 높고, 이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2014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67건, 사망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52.2로 사고2건 중 1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는 고속도로 일반 사고 치사율9.4의 5.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해야한다. 만약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갓길에 설치하고, 도로 안에서는 사람이 없어야 안전하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내가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갑작스러운 자제가 필요하다.

박진희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아동학대 예방·근절 위해 적극신고·처벌 강화해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발간 '2015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2002년 아동보호 건수는 2,478건인데 반해 2013년 6,796건,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200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아동복지법은 예외가 있지만 전국 226개 시·군·구 1곳 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54곳만 설치되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37곳에 보호 규모는 1,036명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 수는 2,912명이나 된다. 특히,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1.0%에 달함에도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 전담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 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또한 총 예산 대비 0.0047%로 0.1% 수준인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경찰에서는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자체 인력을 증원해 '학대전담경찰관'으로 개편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에 주력할 예정이나 이와 같은 보호기관, 보호시설, 관련 예산의 증액 없이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81%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위의 관심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 강화, 아동보호 예산 증액을 통한 아동보호기관 및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조후신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